

19/20 WS TUM 교환학생 활동 보고서

화학생명공학부 김나연

1. 지원동기

저는 2019 년 10 월에서 2 월까지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뮌헨공과대학에서 교환학생 신분으로 다녔습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물론 학업에 지쳐서, 새로운 환경에서 쉬어가면서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도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제 comfort zone 밖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미국을 갈지, 독일을 지원할지 갈등이 많았지만, 저는 해외생활을 오래해서 영어가 한국어보다 편한 이유로 편한 영어보다 하나도 모르는 독일어를 배워가며 독일 문화를 접해보고 싶어서 독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 학년 때 친한 친구를 통해 스누버디 행사를 몇개 참여했는데 그 때 만났던 교환학생 친구들 중에 독일 친구들이랑 제일 친해졌고, 그 중에서 TUM 출신 친구들이 많아서 TUM 을 1 순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한국에서

a. 등록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합격통지를 받은 후, TUM 에서 따로 application form 을 이메일로 보냅니다. 이 application form 은 간단한 지원동기, 학업성적, 어학성적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한 후 몇 주 후에 acceptance letter 가 오는데 합격이메일을 받은 후, 학교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학교에 등록하기 위하여 입학금을 이체하고, 독일 공보험을 들고, TUMonline (서울대의 mysnu 와 비슷한 website)에 증명사진을 업로드 해야합니다. 증명사진은 나중에 학생증에 들어가는 증명사진입니다. 이 3 개 중 하나라도 빠지면 등록이 안되니 꼭 시간 안에 3 가지를 다 하세요!

b. 기숙사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은 기숙사가 보장됩니다. 독일은 신기하게 학교 기숙사가 없고 다 도시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다 보니 배정되는 기숙사로 가야합니다. 따로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이 안좋으면 캠퍼스에서 많이 멀어질 수도..). TUM 은 캠퍼스가 2 개 있습니다. 경영, 전기과, 건축공은 메인캠퍼스, 다른 과들은 다 Garching campus 에 위치합니다. 자신의 캠퍼스와 가까운 기숙사로 배정을 대부분 받아서 가칭캠퍼스로 가야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Studentenstadt 로 배정받았습니다. U6 에 있는 Studentenstadt 는 Garching campus 까지 대략 20 분, 메인 캠퍼스까지 대략 30-40 분 걸립니다. 저는 경영학을 부전공하고 있어서 화학수업이랑

경영수업을 듣기 위해 캠퍼스 둘다 자주 갔었습니다. 기숙사 형태는 배정받은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다 1 인실이지만 공용 주방, 공용 화장실인 사람들도 있고, 개인 주방, 개인 화장실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랜덤으로 배정하기에 운에 따라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집니다.

c. 수강신청

독일은 한국과 달리 원하는 수업을 모두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점 제한도 없고, 심지어 시간대가 겹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을 부르는 수업도 거의 없으며, 학생들에게 자유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수강신청은 따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미나 혹은 언어 수업을 듣고 싶으면 한국과 비슷하게 시간 맞추어서 수강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외에는 인원 제한이 없어서 전공 수업 수강신청인 경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3. 독일에서

a. 생활 준비

i. 안멜둥 (Anmeldung)

독일에 도착하면 2 주 이내에 안멜둥을 해야합니다. 안멜둥은 우리말로 거주지 등록인데 저희는 기숙사 배정을 받으니까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등록을 위하여 termin 을 잡아서 KVR 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www.muenchen.de 에서 termin 을 잡으면 되는데 항상 예약이 마감 되어 있어서 등록하고 싶은 아침에 (KVR 가 열리는 시간에) 수시로 확인하면 취소된 자리들이 생깁니다. 자리가 생기자마자 예약을 하고 KVR 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 안멜둥 신청서, 집주인 이사 확인증인데 확인증은 기숙사 키 받을 때 같이 받아서 그 서류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ii. 계좌개설

계좌는 N26 에서 만들었습니다. 따로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어플을 다운 받아서 계좌를 만들면 우편으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N26 계좌끼리 이체할 때 수수료도 안들고 1 달에 출금을 5 번 수수료 없이 할 수 있어서 제 주변 교환학생들은 다 N26 을 썼습니다. 또한, 친구추천으로 계좌를 만들면 15 유로 받아서 서로 7.5 유로씩 받기도 했습니다. 꼭 친구들끼리 코드를 주고 받으면서 계좌를 개설하세요!

iii. 공보험

공보험은 학교 website 에 있는 보험사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도 이메일을 보내면 보험사 쪽에서 신청서를

보내주는데 그 신청서만 작성하면 가입 완료가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Barmer 보험을 가입했고 한달에 대략 100 유로 정도 나갑니다.

iv. 학생비자

학생 비자는 유럽 Schengen 국가에서 90 일 체류전에 신청을 해야하는데 비자 테어민 잡는게 훨씬 어렵습니다. 이것도 안멜둥 테어민 잡을 때 처럼 아침에 수시로 확인하며 테어민을 잡아서 가시면 됩니다. 이때, 계좌 안에 충분한 금액이 있어야하고 필요한 서류들이 많아서 다 챙겨주세요!

b. 학교생활

i. Party Animals

저는 교환생활 하면서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Party Animals 라는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TUMi 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인데 대략 20 명의 교환학생들을 1 조로 만들어 총 8 조가 있습니다. 개강이 10 월 중순이라 개강 2 주전 부터 매일 이벤트를 진행하며 조 사람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저는 Party Animals 를 통해서 제일 친한 친구들을 사귀었고 지금 까지도 연락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Beer Olympics 에서 City Rally 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많으니 꼭 신청하세요! 대부분 다 Erasmus students 이어서 유럽친구들이고, 특히 저희 조에는 저만 동양인이었는데 저는 엄청 즐거웠습니다. 아시아를 안가본 친구들에게 한국문화도 소개하고 한국 음식도 소개했는데 친구들이 한국음식을 엄청 잘 먹더라고요. 잘 먹는 모습을 보며 너무 뿌듯했습니다. 한국여행을 안해본 친구들이 많아서 원래 이번 여름 방학 때 한국 놀러올 예정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언젠가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이렇게 보고서를 쓰니 친구들 생각이 많이 나네요 다들 너무 보고싶네요.

ii. 한국학생들

저는 유럽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한국학생들이랑도 많이 놀았습니다. 특히 저는 Studentenstadt 으로 기숙사 배정을 받았는데 서울대, 카이스트, 그리고 포항공대 친구들이 여기로 많이 배정 받아서 다 같이 최소 주 2 회는 밥을 같이 해먹었습니다.

iii. Language Café

매주 수요일에 Garching campus 란 main campus 에서 language café 를 진행하는데 Garching campus 의 랭카가 훨씬 규모가 커서 Garching 으로 가세요! 무료로 케이크도 주고 차도 주고, 다른 나라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국으로 교환학생 왔었던 독일 친구들도 만나며 그들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고, 독일 테이블에서 수업 때 배웠던 간단한 독일어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c. 학업

i. 시험 신청

저는 수강신청은 많이 해놓았지만 시험은 3 개 밖에 못봤습니다. 독일은 수강신청과 시험 신청을 별개로 수강신청을 했다고 무조건 학점을 받는게 아닙니다. 수강신청을 한 후, 시험을 보고싶으면 시험신청을 따로 해야합니다. 시험 신청을 안하면 성적표에 아예 나오지 않으니 꼭 시험 신청을 시간안에 하세요! 하지만 독일은 학기가 10 월중순에서 3 월말까지라 어떤 시험들은 3 월에 봐서 모든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아요.

ii. 제가 들었던 과목

제가 수강한 과목은 총 6 개 이지만 일정과 난이도 때문에 시험은 3 개만 봤습니다. 수강한 과목들은 German A1.1, Metals in Biological Systems, Advanced NMR, Entrepreneurship, Strategic Management, Corporate Finance 입니다. 어떤 수업들은 시험이 3 월에 일정이 잡혀서 시험 신청을 못했습니다. 화학과로 교환을 가시면 학부 수업들은 거의 다 독일어 강의이므로 석사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제가 들었던 석사수업들은 교수님들의 강의실력들은 다 훌륭하시고 흥미로웠습니다. 확실히 이 과목을 왜 공부하고 있고, 현재 이런 공부를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강의를 하셔서 더더욱 강의의 중요성과 applicability 를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Metals in Biological Systems 를 강의하신 교수님의 열정이 항상 느껴졌고, 소수 강의라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d. 여행

i. 개강 전

독일은 개강이 10 월 중순이므로 저는 9 월에 1 달동안 가족여행을 하고 10 월에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꼭 개강 전에 여행을 가세요! 9 월이라 8 월만큼 관광객도 많지 않고, 날씨도 훨씬 시원해서 여행하기 좋습니다.

ii. 크리스마스 방학

2019 년에는 12/24-1/5 까지 크리스마스/새해 방학이었습니다. 이때, 운이 좋게 동아리 친구들도 다 유럽으로 교환 오게 되어서 다 같이 2 주 동안 여행했습니다. 저희는 헝가리, 체코,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이렇게 여행을 갔습니다. 사실 방학이 아니라도 수강신청을 잘하시면 주말에도 여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워낙 기차, 버스 (flixbus, blablabus), 비행기가 잘 되어있어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여행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귀국

a. Registration 취소

독일 학기는 3 월말 까지이지만 저희는 2 월에 떠나야하기 때문에 메인캠퍼스가서 직접 deregistration 을 해야합니다. Deregistration 서류가 있어야 압멜등도할 수 있고 보험 취소도 가능해서 꼭 deregistration 하세요! 따로 챙겨야할 서류는 없고 그냥 Student Center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b. 압멜등 (Abmeldung)

안멜등은 거주지 등록이며 압멜등은 거주지 등록 취소입니다. 압멜등은 테어민 없이 KVR 가서 하셔도 되지만 저는 테어민을 잡고 갔습니다. 여권만 가져가면 압멜등 신청서를 받고 작성하시면 끝입니다.

c. 보험 취소

귀국 전에 보험을 취소하고 위해 저는 Barmer 지사에 가서 직접 취소했습니다. 지사에 가면 취소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압멜등 서류랑 학교 registration 취소 서류를 보여주시면 5 분안으로 취소해줍니다.

5. 마치며

저는 독일에서 있었던 5 개월 동안 진짜 행복했습니다. 유럽 친구들은 다 왜 겨울학기에 왔냐, 독일 겨울은 날씨가 구리다, 등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Oktoberfest, Christmas Market 등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도 사귀고, 버스나 기차를 타서 쉽게 여행할 수 있었다는 점도 너무 좋았습니다. 열정적인 교수님들 밑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점도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귀국하고 이 행복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 쓰는 거 추천 드립니다!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도 다 일기를 썼습니다. 교환을 갈지 말지 망설이고 있으면 무조건 가라고 추천 드립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